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권력의 주체

이은주(한국외대)

I. 맺값 폭행 사건

MBC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2010년 11월 18일 SK그룹 2세이자 당시 M&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씨는 탱크로리 차량 매각 문제로 용산구 사무실을 찾은 유씨를 M&M 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맺값이라며 2,000만 원을 건넸고, 5,000만 원에 탱크로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 유씨에게 '폭행' 행위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안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가해자였던 최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010년 12월 1일자 세계면 머리기사로 한국의 재벌가 2세의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이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010년 12월 2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美 언론에 비친 ‘맷값 폭행’ 사건>의 기사이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재벌 총수들이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곧 감형됐다고 전하고, 지난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맷값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이번 주 3만 명의 네티즌이 폭행을 가한 물류업체 M&M의 전 대표 최철원씨의 처벌을 촉구했다면서 한 네티즌은 “최씨를 처벌해 이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썼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재벌에 엄정하지 않은 분위기는 한국전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면서 재벌은 그런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비친다고 논평했다. 재벌가 2세 최씨에게 ‘맷값 폭행’을 당한 유모씨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들(재벌가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라면서 한국에서 보통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취급당해 왔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의 제고(提高)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풍조를 용인하는 검찰과 정경유착의 고질적 잔재는 하루 아침에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버린다. 세계적 일간지의 세계면 머리기사를 장식한 한국의 금권주의 풍조는 지면을 통해 세계에 광고된 것이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이며 부끄러운 일인가?

한편,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53)씨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올해 4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M&M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씨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으로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화물차 운전석에 흥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M사는 폭행한 뒤 맷값을 준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였다.

II. 금권주의의 폭력성과 미래지향적 가치

노무현 정권 이후 정경유착의 고리는 확연히 느슨해진 것 같다. 정치권력의 돈에 의한 부패에 대한 자정 노력은 한국의 정치권에 일단은 싹을 틔운 것 같다.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보이는 한편 금권, 즉 재력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두드러지는 것 같다. 그것은 돈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의 풍조가 만연한 것을 시사한다. 맷값 폭행 사건은 그러한 풍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이다. 맷값 폭행 사건은 돈이 많은 사람이 기득권의 소유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검찰 역시 금권주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죄를 지은 자가 부자라고 해서 법에 의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재력을 가진 자와 그 재력 앞에 정의감을 상실

하는 검찰 권력의 부패를 말해준다.

검찰 조직 전체가 부패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지닌 검찰일 것이다. 극소수 정치 검사들의 행태가 검찰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고 비판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며 소수일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말을 삼가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인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문제는 팽배하다. 맺값 폭행사건은 형사처벌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그러한 풍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높은 연봉의 댓가로 고용인들은 자신의 가정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들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에서 임금이 가장 높지만 그만큼 ‘부러먹는’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대기업들도 삼성의 인사관리전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고용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서바이벌할 수 있는 극한의 생존능력이다. 가정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시간,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견뎌내는 능력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을 비롯한 미래 전문가들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들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매일경제신문이 2006년 3월 24일자에서 다룬 미래디자이너의 조건은 통찰력, 글로벌 능력, 창의력, 리더십, 열정이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 경영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는 *Good to Great*의 저자 짐 콜린스는 21명으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1965년부터 30년 동안 포춘지의 500대 기업 목록에 오른 1435개 기업을 5년 동안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내놓았다. 분석 결과 그는 11개 기업 만이 15년 동안 전체 주식시장의 3배 이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기업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이 되

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위대한 기업의 CEO는 천문학적 연봉을 받지 않으며,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말수가 적고 심지어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인물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위대한 CEO들은 강한 의지를 지니며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인재발굴능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일만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는 시저보다 소크라테스에, 여우보다는 고슴도치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인재상과 리더상에 비춰 볼 때 한국에 만연한, 돈이 곧 기득권을 의미하는 풍조, 그리고 고용인들에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 생존능력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인재관리전략은 한국의 공정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안타까운 것은 고용주를 포함한 리더들이 바람직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자질들이 계발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문명사회를 삼켜버린 세련되지 못한 형태의 자본주의에 의한 물질지상주의 풍조, 그로 인한 인간성이라는 가치의 상실과 인성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정치나 기업의 리더들의 자질이 부족할 때 고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지내야 하나?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방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물질이 쇠퇴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물질성을 띤 것들이 쇠퇴해가듯. 그러나 인간은 물질만이 아닌데...

Ⅲ. 비폭력적 단체행동과 깨어 있는 시민계층

대기업의 고용인들, 정의를 의식하는 검사들은 정의구현을 위한 권력의 주체로서 단체 행동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인류애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지불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인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리적인 퇴근 시간에 조용히들 가정으로 향하는 것은 어떨지. 그러면 기업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10명이 밤늦도록 남아서 일해야 하는 업무량은 15명에게 분담될 것이다. 한두 사람의 정의로운 행동은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끝나기 쉽지만 다수의 단체 행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행동의 주체들을 모두 희생시킬 경우 조직이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의 주체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을 고려하는 행동을 한다면 마찰을 빚기보다는 바람직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소수의 정의로운 행동에 의해 그 사람들이 희생될 경우 그 기회를 노리는 부류는 항상 있다. 인간사회에서 선(善)이 완전히 실현되는 유토피아는 없다. 그것은 계몽주의의 허구적 관념이며 불교의 종교적 믿음의 문제이다. 간디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신탁 관계로 보고 부자들이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권리이자 실패하지 않는 수단으로 비폭력적인 비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불복종을 말하였다.¹⁾ 필자가 말하는 단체적 행동도 현재의

1) M. K. Gandhi, Compiled by H. M. Vyas, *Village Swaraj*(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1962), 38-39.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 그와 같은 비폭력적 비협력 내지는 시민 불복종의 한 표현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좁은 소견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감행하는 동료의 희생을 기회로 삼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회주의는 결국 불공정한 대우를 자처하겠다는 것이며 배신행위는 자존감을 좀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중간계층의 단체행동은 그 주체들이 깨어 있지 않다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생들이 검사직의 50%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 할당하겠다는 입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입소식 거부 및 집단 반발을 했다는 것은 좋은 예이다. 그들의 행동은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들의 행동은 밥그릇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맷값을 지불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라는 밥그릇. 그 밥그릇은 재력, 정치권력에 의해 보호받는 성격의 것이다.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한 사법연수생들은 재력,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대한 것인가? 그들은 맷값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만약 정의를 원하지만 소시민으로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 역시 단체행동의 수단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솔직히 사법연수생들 모두가 로스쿨 출신자보다 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 경험과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정한 법집행에 필요한 자질과 조건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직의 50%를 로스쿨 출신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법무부와 입법부의 방침은 재산계나 있는 이 사회 소수 상위층이나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지배할 특권을 더 보장해 주는 셈이 된다. 그만큼 더 빈부의

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출신자에게 검사직의 50%를 배당하겠다는 정책은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 글은 로스쿨 출신의 검사직 수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맺값 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검찰의 부패를 드러내는 사건들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마당에 사법연수생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밥그릇 지키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단체행동이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의 주체들이 패트리셔 애버딘이 『메가트렌드 2010』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깨어 있는 중간계층이어야 바람직하다. 패트리셔 애버딘은 『메가트렌드 2010』에서 깨어있는 시민에 대해 말한다. 메가트렌드란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크고 중요한 방향성”을 말한다.²⁾ 그러한 방향성의 원동력으로 그녀는 인간에게 내재된 재능인, 의식의 영적 깨달음을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그러한 깨달음은 현재 주어진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의식의 집중이 부수적인 것들로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각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깨달음은 “인간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성의 번뜩임”이라고 말한다.³⁾

깨어 있는 시민이 지니는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영적 수련에 의해 이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치에 정신이 닿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의식의 영적 힘의 발휘를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시민계층이 단체행동의 주체일 때 단체행동은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권력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거나 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

2) 패트리셔 애버딘 지음, 윤여중 옮김, 『메가트렌드 2010』(서울: 청림출판, 2005) 15.

3) Ibid. 14.

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함께 행동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폭력이란 집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규범적 결정에 도달하고 집행하며 자원들을 조작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적 힘을 포함한다.⁴⁾ 폭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용인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은 폭력적인 기업이다. 사적인 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정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폭력적이다. 필자는 패트리셔 애버딘이 말하는 시민 계층은 권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나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질을 지닌 진정한 권력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영혼의 정화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힘으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얻고 그 실현을 위해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윤리적인 권력의 주체는 데브라 메이어슨이 말하는 “온건한 급진주의자들”과 다름없다. 그들의 어조는 겸손하고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커지며 그들은 또한 인내, 끈기, 풍부한 전략을 통해 일이 처리된다고 믿는다.⁵⁾ 하버드의 조셉 바다라코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높은 자리의 누군가가 행하는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행하는, 작지만 실용적인 노력이라고 말한다.⁶⁾

한국과 같이 물질위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빼뚫어진 교육관에 의해 사교육 시장이 비대하고 인맥과 연고주의가 만연한 풍토에 그러한 깨어 있는 시민계층은 아직 희박하다. 그러한 풍토는 건강한 시민정신이 확산되고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70~80년대에 비해 먹고사

4) 이동수, “정치평론에서의 ‘Lexis’와 ‘Logos’”, 『정치와 평론』 2010. Vol. 7, 한국정치평론학회, 136-137.

5) 패트리셔 애버딘 지음, 윤여중 옮김, 『메가트렌드 2010』(서울: 청림출판, 2005) 114.

6) Ibid. 113.

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삶의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질에 대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성향이 강해졌음을 말해줄 것이다. 보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IV. 정의란?

정의는 죄를 처벌하는 검사에게만 국한되는 가치가 아니다. 정의는 모든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필자는 인도의 다르마(산스크리트: *Dharma*) 사상에서 정의의 원형을 발견한다.⁷⁾ 다르마란 우주 만물의 움직임 이면에 작용하는 우주적 원리에서 파생한 개념으로서 정의를 뜻하며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 다르마의 교의는 개인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힌두교 사상을 뜻한다. 다르마의 우주적 법칙의 의미와 개인적 의무의 의미는 결국 실천적으로 화통한다. 개인의 이기(利己)가 극복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의무는 우주의 법칙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정의는 우주적 원리가 인간 사회의 정치·경제적 가치의 맥락에서 지니게 되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작용하는 원리가 정치·경제적 가치의 맥락에서 실현될 때 정의로 불리는 것이다. 우주적 원리가 정치적 가치의 맥락에서는 정치적 정의로, 경제적 가치의 맥락에서는 경제적 정의로 불릴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인간은 우주적 원리

7) 이거룡 옮김, S. Radhakrishnan 저, 『인도철학사』 I(한길사, 2007), 83. 간디해설, 이현주 옮김, 『바가바드기타』(당대, 2001), 558-562.

에 따른 이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깊이가 생기며 그만큼 정치·경제적 정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영적 성장 없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정의의 왜곡을 가져온다. 정의는 로고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신에 의해 직관적으로 비전의 형태로 얻어지며 그 비전의 내용은 그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구체화된다. 영적 성장과 함께 비전의 내용을 통찰하고 로고스의 형태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에 의한 정의의 비전이 먼저이며 로고스는 뒤따르는 것이다. 영적인 힘에 의해 정의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개념 혹은 고정관념 혹은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품고 배타적인 자세를 띠게 된다. 그러한 성향은 서로 배타적인 소집단 사이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V. 의식의 영적인 힘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 성장은 온화하며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중도적이며 평화지향적인 성향을 수반한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정의에 대한 거스를 수 없는 의지가 용기의 형태로 작용하게 한다.

한국사회가 건전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계층 속에서 정치인이 배출되어야 한다. 『메가트렌드 2010』에 CEO들 중 영적 수련을 생활화하는 새로운 타입의 CEO들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기업경영과 같이 돈의 유혹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는 권력의 유혹을 부른다. 정치에 종사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타입의 정치인이 기대된다. 깨어 있는 시민으로의 변화를 위해 영적 수련이 요구된다. 마음이 청정해지며 지혜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는 모두 넓은 의미의 영적 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상이나 선, 요가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적 수련 방법뿐만이 아니라 차명상, 산책 등도 영적으로 깨이는 효과가 있다면 영적 수련이다. 사람의 근기와 현재의 조건에 따라 그 수단은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이기적인 ‘나’의 탐욕과 집착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이기(利己)의 소멸, ‘나’의 죽음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낳는다. 진정한 정치적 행동이란 바로 그러한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기가 극복된 마음에 지역구, 시민, 국민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이기가 소멸된 다음을 가정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이 진정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죽을 때까지 이기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이거나 이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기 계발에 의해 길러진 영적인 힘에 이끌리어 정의에 대한 비전이 자신의 인격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자연스런 행위를 통해서 말이다.

인간의 마음은 과거에 지은 업의 힘과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힘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은 업의 힘이 훨씬 위력적이고 자기 향상을 꾀하려는 힘은 미미하다. 칸트는 교육이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락하게 하는 힘을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한 인간이 윤리적 권력의 주체로 변화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수단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관리를 위한 선한 습관이 자기를 만드는 계기인 것이다. 빗방울이 돌을 뚫듯 그러한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애버딘은 인간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식의 영적인 힘의 발휘 없이 인류 문명에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공정사회의 구현을 위한 권력의 주체는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의 영적인 힘을 기르고 발휘하는 자이다. 모든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주체에 달려 있다. 공정사회의 구현은 개개인이 그와 같은 깨어 있는 의식의 소유자로의 변화를 꾀하는가에 달려 있다.